

시각예술진흥을 위한 12가지 추진과제

양 현 미 · 문화관광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환경

경변화 및 수요전망

새로운 시각예술진흥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고려해야할 환경변화 요인으로 다섯 가지를 설정하였다. 첫째, 주5일제 확대, 소득증대, 삶의 질을 추구하는 가치관의 확산, 주말 여가수요 증대 및 여가패턴의 다양화와 복합화, 친환경적이고 아름다운 공간환경에 대한 요구가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사회의 성장, 정부정책에 대한 민간의 참여욕구 증대, 공공부문의 정책적 책임성에 대한 요구 증대, 비주류 집단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지역분권, 지방문화 육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책임성 증대, 지역간 문화적 격차에 대한 시정 요구 증대, 지역문화 자원을 활용한 특성화 요구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지식정보화와 디지털 문화의 확산, 첨단매체를 활용한 창작 및 전시 증가, 장르 해체 및 장르 복합화 경향 증대, 미디어 아트(media art)가 새로운 시각예술 장르로 부상, 미술시장에서 전자상거래 도입 시도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섯째, 세계화 및 동북아 지역의 블록화, 민간부문 및 지자체 주최 국제미술행사 증대, 동북아 미술시장의 확대로 시장진출 가능성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동안의 정책 추진 성과

그동안 정부가 시각예술진흥을 위해 추진해온 정책의 성과를 살펴보면, 우선 창작여건 조성 및 활동 지원을 위해 정부는 국립창작스튜디오를 창동, 고양 2개소에 조성하고, 폐교를 활용한 창작스튜디오 전국 23개소에 조성하였다. 2002년 12월 현재 전국 미술관은 총 62관으로 정부는 미술관 확충을 위해 공립미술관 건립비용의 30%이내에서 국고

보조를 해왔다. 신진작가의 실험적 예술활동 지원을 위해 2000년 인사미술공간을 개관하였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대안공간 활성화를 위해 6~7개소에 매년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 왔다. 문화예술 향수 기회 확대를 위해 건축물 미술장식제도를 운영하여 2000년부터 2002년까지 2,135점, 1,400억원 상당의 미술장식품을 설치하였으며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전국에 27개 조각공원을 조성하였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01년도부터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6조에 근거하여 학예사에 대한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2년 말까지 발급된 자격증은 3급 정학예사 307명, 준학예사 20명이다. 시장 활성화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미술품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폐지하였으며, 해외미술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아트페어 참가 화랑을 지원하고 국내에 세계미술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창설된 「한국국제아트페어」를 지원해 왔다.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광주비엔날레, 부산비엔날레 등 지역에서 개최되는 국제비엔날레 운영비를 지원해왔다.

시각예술 분야 예술정책의 문제점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루어졌던 시각예술분야 예술정책의 문제점은 우선 순수미술 중심으로 사진, 디자인, 공예 등 장르간 지원 불균형을 지적할 수 있다. 사진은 최근 질과 양에서 급성장하고 있으나 이를 중요한 예술의 형태로 인식하고 교육·전시·보급하기 위한 정책이 거의 없었으며, 디자인의 문화적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 채 디자인과 예술정책, 디자인과 산업정책의 관계 설정에서 혼선을 보여주었다. 또한 공예를 관광기념품 개발이라는 협소한 산업정책의 틀 속에서 다루므로써 전통공예와 현대공예의

미술시장의 불황을 거치면서 상대적으로 경매제도가 관심을 끌고 있으나 작품 진위 문제나 거래자의 신상 미공개 등의 과제를 내포한 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해외미술시장 개척을 위해 국제아트페어 참가 화랑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지원규모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연계, 공예의 산업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의 조화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정책 부재를 가져왔다.

둘째, 창작지원 부문에서는 문예진흥기금의 미술지원 규모가 연간 10억원 선으로 전국의 미술인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전개하기에 부족하고 시각예술 분야의 다양한 장르간 균형을 고려하여 지원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예, 디자인, 건축 분야에 대한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창작스튜디오는 공간지원에만 머물고 본격적인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가동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폐교를 활용한 창작스튜디오는 접근성이 낮고 운영비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공간지원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도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인프라 조성 부문에서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중요 미술활동이 이루어지는 미술계의 현장으로부터 떨어져 있고 일반시민의 접근성도 낮다. 국립미술관이 양적으로 부족하며 대부분의 사립미술관은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다. 또 사립미술관이 양적으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원혜택이 없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넷째, 예술향수 부문에서는 건축물 미술장식제도가 도시 공간환경의 질적 수준 제고와 시각예술진흥을 위해 시행되고 있으나, 비리와 담합 등 시행상의 문제로 인해 이 제도가

갖는 가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조각공원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공장소의 맥락에 대한 이해가 없는 작품이 설치되어 예술적 성취 측면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의 미적 감수성 제고 측면에서 모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미술시장이 장기 침체의 국면에서 좀처럼 활기를 되찾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미술품 거래 감소, 화랑의 경영난, 재료값 상승으로 인한 작가의 창작활동 저하 등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이는 호당 가격제에 의한 가격의 비합리성, 미술품 감정의 공신력 논란, 느슨한 전속작가제도, 미술품 구입을 투기행위로 인식하는 일부의 시각, 미술품의 보험 및 담보능력 저평가 등 구조적 문제들에 원인이 있으나 이에 대한 정책적 개선 노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미술시장의 불황을 거치면서 상대적으로 경매제도가 관심을 끌고 있으나 작품 진위 문제나 거래자의 신상 미공개 등의 과제를 내포한 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해외미술시장 개척을 위해 국제아트페어 참가 화랑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지원규모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여섯째, 국제교류 부문에서는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이외에 다른 국제비엔날레 참가자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다. 지역에서 국제비엔날레를 운영할 수 있는 인적·재정적 역량의 한계로 세계미술계에서의 인지도나 지명도가 낮다. 또한 국제교류에 대한 지원이 주로 창작자 및 전시 중심이다 보니, 창작의 토대가 되는 다양한 이론적·학술적 교류가 부족하다.

21세기 시각예술진흥 시각예술분과의 중점추진과제는 국립미술관 체제 개편 및 운영 활성화, 등록미술관 확충 및 운영 활성화, 신진미술가의 실험적, 대안적 창작 지원, 창작스튜디오 확충 및 레지던스 프로그램 도입, 공공부문의 미술품 활용 증진, 건축물 미술 장식제도를 공공미술제도로 전환, 건축을 통한 도시문화환경 개선, 디자인을 예술산업으로 적극 육성, 공예의 예술적, 산업적 가치에 기반을 둔 조화발전, 사진의 기록적, 예술적 가치 제고, 미술품 유통구조 개선 및 시장 활성화, 국제미술교류 확대이다.

12개 중점 추진 과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21세기 시각예술진흥을 위해 시각예술분과에서는 12개 추진과제를 설정하였다.

(1) 국립미술관 체제 개편 및 운영 활성화 (2) 등록미술관 확충 및 운영 활성화 (3) 신진미술가의 실험적, 대안적 창작 지원 (4) 창작스튜디오 확충 및 레지던스 프로그램 도입 (5) 공공부문의 미술품 활용 증진 (6) 건축물 미술 장식제도를 공공미술제도로 전환 (7) 건축을 통한 도시문화환경 개선 (8) 디자인을 예술산업으로 적극 육성 (9) 공예의 예술적, 산업적 가치에 기반을 둔 조화발전 (10) 사진의 기록적, 예술적 가치 제고 (11) 미술품 유통구조 개선 및 시장 활성화 (12) 국제미술교류 확대이다.

(1) 국립미술관 체제 개편 및 운영 활성화

국립미술관 체제 개편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국립현대미술관의 서울 도심 이전, 국립현대미술관 조직개편 및 전문인력 확충, 덕수궁 분관의 근대미술 연구 및 전시 기능강화, 국군 기무사 부지 활용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2) 등록미술관 확충 및 운영 활성화

등록미술관 확충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국립미술관 확충

및 운영 활성화, 사립미술관 확충 및 운영 활성화, 학예사 자격제도 개편 및 미술관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3) 신진미술가의 실험적, 대안적 창작 지원

신진미술가의 실험적, 대안적 창작 지원을 위해 마로니에 미술관을 신진작가 종합지원센터로 개편하고, 민간 비영리 미술공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4) 창작스튜디오 확충 및 레지던스 프로그램 도입

창작스튜디오 확충 및 레지던스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창작스튜디오의 법적 근거 마련, 국립창작스튜디오 확충 및 운영개선, 국립창작스튜디오 조성, 개인 및 민간 창작스튜디오 지원, 전국 창작스튜디오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5) 공공부문의 미술품 활용 증진

공공부문의 미술품 활용 증진을 위해 미술은행 제도 도입, 공공기관의 대민 서비스 공간 개선 시범사업 실시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6) 건축물 미술 장식제도를 공공미술제도로 전환

건축물 미술 장식제도를 공공미술 제도로 전환하기 위해 미술장식 개념을 공공미술로 확대, 민간 건축주 미술장식비용 기금 출연시 할인혜택 부여, 국가 등 공공기관의 미술장식비용을 1%이상으로 환원, 제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공공미술 DB 구축, 공공미술 기획관리업체 등록제도 도입 및 중개수수료 양성화, 공공미술센터를 설치하여 제도 시행 평가 및 감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7) 건축을 통한 도시문화환경 개선

건축을 통한 도시문화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문화공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문화부 내 조직체계 일원화, 문화공간 인증제도의 도입, 가로수, 공원, 광장, 어린이놀이터 등 문화적 리모델링 사업 추진, 도시문화 거점공간 조성, 도심내 미사용 공장·발전소·공공시설의 문화시설 전환, 시민문화단체의 공간환경 모니터링·보존·감시활동 지원, 도시역사문화 회복과 근대건축물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활용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8) 디자인을 예술산업으로 적극 육성

디자인을 예술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해 디자인문화원 설립, 디자인미술관을 디자인박물관으로 확대개편, 국공립 미술관에 디자인부 설치, 공공디자인의 질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9) 공예의 예술적, 산업적 가치에 기반을 둔 조화발전

공예의 예술적, 산업적 가치에 기반을 둔 조화발전을 위해 공예 업무를 예술산업과로 이관, 한국공예문화진흥원 확대개편, 공예미술관 설립, 인증 및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공예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10) 사진의 기록적, 예술적 가치 제고

사진의 기록적, 예술적 가치 제고를 위해 국립사진아카이브 설치, 국가 및 지자체 공공건설 및 공공행사 사진기록 의무화, 국립현대미술관 사진영상 콜렉션 강화, 젊은 세대 사진작가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사진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11) 미술품 유통구조 개선 및 시장 활성화

미술품 유통구조 개선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인의 미술품 투자규제 철폐, 개인의 미술품 구입 우대방안 마련, 미술품 감정연구소 설립 지원, 화랑의 전속작가제도 운영 지원, 미술품 경매 참여자의 신원 보장, 해외시장 진출 화랑 및 경매사에 대한 융자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12) 국제미술교류 확대

국제미술교류 확대를 위해서는 국내·국제비엔날레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해외 국제비엔날레 참가 지원, 외국 주요 미술관 전시 유치 및 전국 순회전 지원, 미술인 펠로우십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중점 추진 과제들은 향후 공청회를 통해 미술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보완될 예정이다. 